제 1577 호 1991년 11월 24일 창간 2022년 5 월 8 일

§교 회 목 표§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2022년 표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마 22:37-40)

†행동지침†

1. 다시 말씀 앞에(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발행인 : 손달익 목사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어버이주일 메시지

네 부모를 공경하라 !

손달익 담임목사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어버이주일은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고, 부모님이 보여주신 섬김과 정성에 대해 공경의 마음을 드리는 뜻깊은 날입니다. 고사성어 중 반포지효(反哺之孝)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진나라 왕이 덕망 있고 학식 깊은 어느 선비에게 높은 벼슬을 내렸는데 그가 관직을 맡을 수 없다고 공손히 거절했습니다. 왕이 이유를 묻자 그가 늙고 병든 할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본인 외에는 돌봐 줄 사람이 없기에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날까지 봉양을 하도록 허락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때 신하가 비유를 든 것이 까마귀의 이야기입니다. 까마귀는 알에서 깨어나 부화한 지 60일 동안은 어미가 새끼에게 먹이를 주지만, 새끼가 다 자라면 그때부터는 힘이 부치는 어미를 위해서 자식이 힘을 다해 어미를 먹여 살린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진나라 왕은 효심에 크게 감동하여 상을 내리고 '자식이 어버이의 은혜에 보답하는 효성'을 이르는 뜻으로 '반포지효'라 칭했습니다. 이처럼 부모님의 은혜에 아름다운 헌신으로 보답하는 자녀의 효는 동서고금 귀감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길 것을 늘 강조합니다. 십계명 중 5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입니다. '공경'은 '남을 대할 때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고 받듦'을 말합니다. 즉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언제나 조심스럽고 단정해야 하며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땅의 유업과 생명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경은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잠 23:22)고 말씀하십니다. 현대사회의 문화가 급변하여 가정의 가치관도 변화되고 실용성을 강조하는 세상논리 때문에 전통의 아름다운 효 개념도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우리는 지난 세대 힘겨운 민족 역사의 한 가운데를 관통하며 오늘의 역사를 만들어 주신 부모님들께 대한 존경과 공경의 중심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윤리의 차원 이전의 신앙적 차원이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천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키우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부모님들, 우리나라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헌신하셨던 앞선 세대들의 수고와 업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진정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 간직해야 합니다.

어느 어버이날,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읽었던 시 한 편이 있습니다. 박목월 시인의 '어머니의 눈물'입니다.

회초리를 들긴 하셨지만
차마 종아리를 때리시진 못하고
노려보시는
당신 눈에 글썽거리는 눈물

와락 울며 어머니께 용서를 빌면
꼭 껴안으시던
가슴이 으스러지도록
너무나 힘찬 당신의 포옹

바른 길
곧게 걸어가리라
울며 뉘우치며 다짐했지만
또다시 당신을 울리게 하는

어머니 눈에
채찍보다 두려운 눈물
두 줄기 볼에 아롱지는
흔들리는 불빛

어머니 아버지들의 이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존재합니다. 어버이주일, 부모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나 또한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이며 살리라 다짐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5월 정기당회 열리다

당회는 손달익 담임목사의 인도로 지난 5월 4일(수) 수요 2부 예배 후 5월 정기당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당회는 새로 임직한 신임 장로들과 함께한 첫 당회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신임 장로들이 처음으로 참석한 5월 정기당회

2022년 홍해작전

일시 : 6. 5(주일) - 6. 25(토) 새벽 5시 30분 - 6시
특별새벽기도회 : 6. 20(월) - 6. 25(토) 새벽 5시 - 6시 / 강사 : 손달익 목사

2022년 홍해작전이 6. 5(주) 찬양예배 시 개전 예배를 시작으로 20일간 '말씀과 기도 운동'을 시작한다.

6. 6(월) - 6. 18(토)은 새벽 5시 30분 - 6시까지 대면 및 영상중계로 드려지며 6. 20(월) - 6. 25(토)은 새벽 5시 - 6시까지 손달익 목사를 강사로 특별새벽기도회를 갖는다. 6. 26(주)에 찬양예배 시간에 증경총회장 김태영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승전 감사예배를 드린다.

- 주제 : "홍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팬데믹을 넘어 부흥으로!"
- 주제 성구 :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사 51:3)."
- 주제 찬송 :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조 직

- 본부장 : 차영도 장로
- 지 도 : 안용곤 목사
- 차 장 : 김광민 집사
- 기획분과 : 김영희 / 장상국 장경원
- 예배분과 : 채교천 / 주일 1·2· 3부 주일찬양예배 예배위원
- 찬양분과 : 한은미 / 각 찬양대 대장
- 동원분과 : 임우택 / 김진달 박광식 김웅기 유외숙 김연화 각 교구 간사
- 홍보분과 : 문동진 / 김규태 허 숙 유은경 김영숙
- 봉사분과 : 김애리 / 권진순 권사회 한나 전도회 마리아 전도회
- 차량분과 : 홍창훈 / 오교식 배효복 이용길 장창수 스데반회 차량관리부
- 재정분과 : 송성태
- 교육분과 : 한대석 / 옥종호 이승준 각 교회학교 부장

두 개의 특별위원회 구성

교회는 두 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먼저 교회 정관 등 규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장은 최형열 장로, 자문 위원으로는 노문환 원로장로와 서문석 원로장로가, 위원으로는 이민호 장로가 담당한다.

또한 교회 불용 재산 처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계속 증가하는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을 축소하고 불필요한 부동산을 계속 교회 명의로 보유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교회 불용 재산 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장으로는 이강인 장로, 자문으로 오정수 원로장로, 위원으로는 서은석 장로가 맡는다.

서울교회 비주얼 아이덴티티(Visual Identity, 시각적 정체성) 시스템 수립을 위한 연구 시작

당회는 설립 30주년과 오랜 기간 교회 분쟁을 겪고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의 이미지 가치를 새롭게 하고 나아가 한국 교회 리더로서의 이미지를 확립할 수 있도록 서울교회 심볼 마크를 비롯 현재까지 사용 중인 교회 내 여러 홍보물 등에 대한 차별화된 비주얼 아이덴티티를 수립하기로 하고 올해 신설된 서울교회 디자인팀(팀장 : 홍창훈 집사, 담당 : 김금재 집사 이미영 권사 유은경 집사)을 중심으로 착수하기로 하였다.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대면교육 재개 일정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서울교회 모든 모임과 교육이 정상화되고 있다.

또한 성경대학도 6년 만에 15일(주일) 아기학교를 시작으로 17일(화) 출애굽기, 19일(목) 마태복음 반이 개강한다.

새로이 시작하는 주중 성경대학에 많은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란다.

부서	담당	재개일시	시간	장소
사랑부	전재홍 목사	4월 17일 (주)	10:30 - 12:00	603
신앙강좌부	양정호 목사	4월 24일 (주)	12:20 - 13:15	101
소요리문답부	심우진 목사	5월 1일 (주)	10:10 - 11:00	606
신혼가정부	김익환 목사	5월 15일 (주)	15:00 - 16:00	606
소망부	장석남 목사	5월 22일 (주)	10:00 -12:00	102
영어성경부	양정호 목사	5월 15일 (주)	10:10 - 10:50	802
아기학교	강남희 전도사	5월 15일 (주)	14:00 - 15:10	706
출애굽기	안용곤 목사	5월 17일 (화)	10:30 - 12:00	602
마태복음	조동수 목사	5월 19일 (목)	10:30 - 12:00	602

초대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및 가족 사랑의 달을 맞이하여 교회 어르신들이 팬데믹으로 인해 움츠렸던 어깨를 펴고 반가운 얼굴들과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소망부(부장 : 손태현 집사)가 당회의 후원을 받아 교회 어르신들께 맛있는 점심식사를 대접합니다.

5월 18일 수요 1부 예배 후 교회 8층 식당에서 진행하오니, 이날 70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모두 교회로 나오셔서 수요 1부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체험하신 후 그리웠던 교우들과 함께하는 2년여 만의 즐거운 식사와 교제의 시간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우 여러분께서도 주위에 많이 알려 주시고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5월 18일(수) 오후 12:30
- 장소 : 8층 만나홀

어버이주일

엄마 아빠 사랑해요!

조하음 (유년부)

엄마, 아빠께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저는 조하음이에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부모님께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조금은 어색하지만 노력해 볼게요. ㅎㅎㅎ 엄마 항상 맛있는 밥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빠는 저를 지켜주시고 놀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맛있는 밥을 해 주세요
그리고 저랑 놀아주세요~~
엄마 아빠 모두 모두 건강하세요♡ 앞으로도 건강한 생활이 되세요~
그리고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있게 항상 기도할게요!!
그리고 선물로...
어버이날에는 엄마 아빠를 위해 소원을 1개씩 들어드릴게요~!
그럼 앞으로도 교회 잘 다니고 찬양도 열심히 할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어버이주일

아빠, 우리 꿈같은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노애리 집사 (6교구)

아빠.

'보고 싶다'라고 하기엔 네 글자가 너무 약하고 그 어느 다른 것으로는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기분을 아빠는 오래전 아빠의 엄마 아빠를 천국에 보내실 때 이미 아셨겠지요?

같아요. 지금의 저도...

아빠랑 함께하지 않은 첫 해인 2022년도, 교회 한티 공원 쪽 문이 열려 보니 봄꽃이 한창인 계절이에요.

살짝 기력이 예전 같지 않으셨던 여름을 지내며 심방 오신 담임목사님과 아들처럼 든든해 하시던 교구 목사님을 뵌 날은 아이처럼 즐거워하셨던 것도 기억나요.

10월 중순 힘내어 오셨던 서울교회 예배당이 눈에 직접 담으신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지요.

가을 단풍이 한창일 때 집 산책로를 함께 걸으며 이 길이 '시온의 대로'라고 힘차게 외치셨던 산책이 함께 발걸음 한 마지막인 줄도 몰랐지요.

늦가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며 보고 싶어 하셨던 분들을 하루하루 집에서 만나 예배하기를 한두 달...

11월 마지막 주일인 서울교회 생일날 저녁엔 아빠가 울며 기도를 해 주셨죠. 서울교회를 위해, 가정의 헌신을 위해.

겨울이 되어 온 세상 기쁜 예수님 생일도 지나고 2021년 마지막 주일, 엄마의 권사 은퇴식 예배가 있는 저녁에 온 가족에게 예배 후 득달같이 끝나자마자 집에 빨리 오라는 부탁 말씀에 뭔지 모를 눈물 속에 예배를 드리고, 한복 차려입은 엄마를 보시며 감사하다고 하시며 자꾸 잠을 주무셨네요.

그날 밤 권사 은퇴식 입으셨던 한복을 그대로 입으신 채 찬송을 부르며 밤을 새신 엄마를 다시 만난 월요일 아침 시간, 젖 먹던 힘을 이렇게 쓰는구나 싶게 부른 우리들의 찬송 목소리와 쉬지 않고 내려오는 눈물의 힘이 서로 경쟁하듯...

지나는 시간 속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던 아빠의 천국 가시던 시간...

잠깐의 헤어짐이겠지만, 천국 가시던 그 과정을 함께 하며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함께 해 주심을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씩 되돌아보니 작년에 했던 아빠의 언어, 요청, 바램들이 우리 하나님 어쩌면 그리 아빠에게 천국 가는 길을 준비케 하셨을까 놀라워요.

함께 했던 것들은 했던 대로의 기억으로, 미처 함께 하지 못한 것들은 그러지 못한 아쉬움대로 남아있지만 이 모든 것 가족으로 함께 한 기쁜 기억으로 품습니다.

또다시 한 명 한 명 부르실 그날에, 우리 꿈같은 천국에서 만나요! 사랑하는 아빠!

김주은 성도

저는 코로나가 시작된 재작년에 결혼을 하였고, 결혼 생활과 동시에 비대면 예배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직접 가지 않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 처음에는 너무나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점차 이러한 신앙생활에 익숙해지고 오히려 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가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시부모님이 다니시는 서울교회에 처음 새가족으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자라온 교회이기도 하고 저희 결혼 예배도 이종윤 원로목사님께서 주례해 주신 터라, 낯설지만 가깝게 느껴지는 교회였습니다. 사실 저는 부모님 신앙을 따라 태어날 때부터 계속해서 교회를 다녀왔기 때문에, 교회에서 새가족으로 등록하게 되는 일이 조금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또 전도사님으로부터 복음의 메세지를 다시금 탄탄히 배워가며, 하나님께서는 제게 예배에 대한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기쁜 소식'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곳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가정되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을 서울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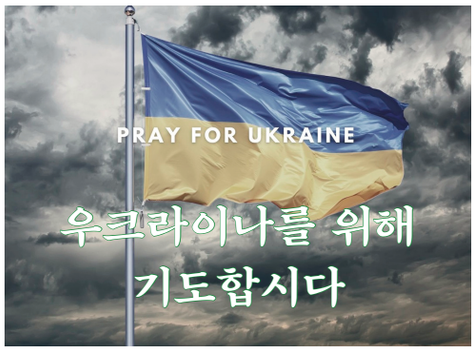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기 바란다.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
  010-3344-6400
- 기도 대상자들
  한지원 심중규 문영훈 이준우 정건 유성근
  경건웅 이진우 유동연 심준규 허성강
  백승규 옥준용 장하랑 최윤학 이강현
  황수지 소위 안지훈 중위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문창희 중사 김정균 소령



동정

■ 떡 제공 : 5교구 김재근 집사 · 안분선 권사 가정
(범사에 감사하며)
■ 식사 제공 : 교회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5월9일	월	대상 9–11		겔 24–31	
5월10일	화	대상 12–14		겔 32–36	
5월11일	수	대상 15–17		겔 37–42	
5월12일	목	대상 18–22		겔 43–48	
5월13일	금	대상 23–25		단 1–5	
5월14일	토	대상 26–29		단 6–12	
5월15일	주일	대하 1–5		호 1–14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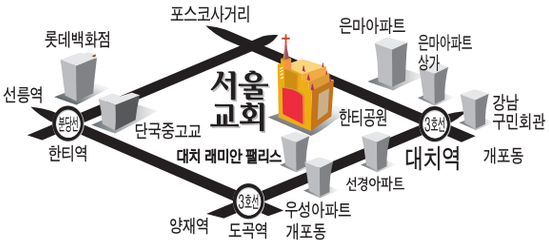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웃을 향해 퍼져나가는 가정 되게 하소서.
2. 비대면의 유혹을 이겨내고 모이기에 힘쓰며 , 새로운 부흥의 시대로 나아가는 서울교회 되게 하소서.
3.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그치고, 이 땅에는 복음으로 통일된 나라가 오게 하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요예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